

# 정보화사회광장

## 체신부

### 한·미 통신회담 가져

한·미 통신회담이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돼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있던 통신현안들 대부분이 타결되고, 기업내통신범위등 일부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을 계속기로 했다.

지난달 8일 체신부에 따르면 **李인표** 통신개발연구단장과 미 무역대표부 **낸시 아담스** 亞太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은 한국이 UR협상에 제출한 오퍼리스트(양허계획서)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을 표시하는 등, 상당부분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오는 7월부터 DB, RCS(원거리 컴퓨터 서비스), VAN등 통신 서비스시장을 50%이내 합작 조건으로 외국기업에 허용하며, 94년부터 VAN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을 전면 폐지한다는 등의 양허계획서 내용을 설명했다.

체신부는 또 이번회담에서 유선통신기기의 인증기준 완화 및 무선통신기기의 기술기준완화 문제도 큰 어려움없이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미국측은 통신기기의 정부조달문제에 대해 92년부터 일반통신물품을 GATT 정부조달절차에 따라 경쟁조달하고, 통신망장비는 별도 조달절차를 마련해 93년부터 시행한다는 한국측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체신부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전용회선의 기업내통신 범위를 계열기업은 물론 관련거래기업까지 허용할 것을 주장한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간이나 공공단체 상호간에만 인정하는 현행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국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을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체신부는 오는 7월이후 미 사업자가 국내 민간사업자와의 협작을 통해 국제VAN 서비스를 공동

제공할 수 있도록한 통신회담의 합의에 따라 국제VAN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오는 5월 이전 개최할 것을 미측에 정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 FM다중방송 방식 및 수신기 개발 착수

체신부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FM다중방송방식 및 수신기를 개발, 오는 93년부터 서비스에 나선다.

최근 체신부에 따르면 기존 FM방송전파의 보조 부반송파를 이용, 여러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송방식의 연구 및 수신기를 개발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 개발과제를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에 위탁, 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강구기로 했다.

FM다중방송은 내년에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방송방식을 최종 결정후 93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FM방송은 현재 주반송파를 쓰고있는데 선진국들은 FM방

송전파의 보조 부반송파를 이용, 데이터전송 및 음성비상재해방송등에 사용하고 있다.

FM다중방송이 시작되면 디지털신호에 의한 데이터전송이 가능하며 수신기를 갖출 경우 교통사고정보등도 청취할 수 있다.

체신부는 전파산업진흥협회와 민간업체들이 참여, 수신기(어댑터)를 개발하고 유럽 및 일본식 방송방식의 특성등에 관한 연구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 EMI검정 품목 확대

체신부는 작년 11월부터 구내교환기 팩시밀리등 유선통신단말기 12개품목에 대해 EMI검정을 받도록 한데 이어 이달부터 각종 정보기기도 EMI검정을 받아 합격품만 생산판매토록 했다.

체신부가 확정된 정보기기 검정시행계획에 따르면 3월부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13개품목, 6월부터는 정보통신단말장치 전송용장치, 9월부터는 온라인장치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오는 1일부터 생산되는 새 모델에 대해 EMI검정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업무용인 A급기기중 워드프로세서·복사기·범용컴퓨터·미니컴퓨터·사무용컴퓨터·공업용컴

퓨터·트래프팅머신·프로트·프린터·서비스장치·데이터다중화장치·퍼스널컴퓨터등이며, 비업무용인 B급기기는 퍼스널컴퓨터 프린터등이다.

체신부는 지난해 전파관리법을 개정, EMI검정대상 기기들은 전파연구소를 비롯 민간 지정시험기관에서 EMI검정 합격표장을 받은 제품에 한해 생산 판매토록 했다.

## 한국통신

### 자동통역전화 개발 착수

한국통신(사장李海育)은 지난달 27일 한국어만으로 국제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동통역전화시스템」을 2005년까지 개발하기 위해 올해 학계,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세부추진계획수립과 아울러 기초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이 개발할 「자동통역전화시스템」은 연구개발비만도 1천억원이 투입되는 메머드 프로젝트로 2005년까지 천3백명의 연구인력을 비롯해 올해 5억7천만원, 92년도 27억원, 93년도 50억원, 94년도는 61억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동통역시스템연구개발계획은 모두 4단계로 구성되어

94년까지 특정화자에 의한 전화번호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며, 97년까지 음성에 의한 정보검색 및 번역시스템 실험모델을 개발하고, 2천년까지 자동통역시스템 실험모델을 개발, 마지막 4단계인 2005년까지 자동통역전화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동통역전화란 전화기를 통해 사람의 말이 입력되면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분해하여 숫자나 전기부호로 음성의 특징을 표출하고, 이를 기계어번역기를 통해 상대국 언어로 변환하고, 음성어합성기로 음성신호를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음성인식〉, 〈기계어번역〉, 〈음성합성〉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한 응용기술이다.

### 해외에 통신기술 처녀수출

한국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신시설 확장 및 현대화사업의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사업팀(단장 權태영)을 지난달 20일 파견했다.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통신기술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의 경영기획, 운영보전, 투자사업, 물자관리, 재무관리, 계약 및 마케팅분야에 전문인으로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공사(PE-RUMTEL)가 추진하고 있는

TAP(TWINNING ARRA - NGEMENT PROJECT)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년간 현지에 상주하면서 MAN-TO-MAN 형식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전기통신공사는 자국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통신시설 확장(가입전화 640만 회선증설) 및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한국통신이 자국통신사업에 참여토록 지난해 12월21일 317만달러에 사업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통신에서는 이번 사업수행을 계기로 대규모 통신시설 확장사업에 국내통신산업체의 진출 교두보를 구축, 한국통신기술(주)를 창구로 국내 통신기자재 등의 연계 수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 데이터통신 장비 고성능제품으로 교체키로

한국통신은 데이터통신 장비인 DP(데이터포트)를 고성능제품으로 교체, 디지털전용회선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국통신은 현재 전화국마다 속도별로 설치돼 있는 DP를 오는 6월부터 2천4백bps급에서 56Kbps급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교체키로 했다.

이에따라 디지털전용회선 이용자는 앞으로 전화국에 설

치된 DP기종에 상관없이 필요한 속도에서 데이터전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오는 4월까지 새로 설치되는 DP의 표준화작업을 끝내고 6월부터 이를 각 전화국에 본격 공급할 계획인데 사업 초년도인 올해 시지역 전화국을 위주로 1만6천대의 DP를 공급하고 92년 3만3천9백대, 93년 5만7천6백대, 94년 8만9천8백대로 연차적으로 늘리는 등 오는 94년까지 이를 모든 전화국에 설치할 예정이다.

## S/W수요예보제 실시

한국통신은 오는 4월부터 자사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때 이를 1년전에 미리 공개하는 「소프트웨어수요예보제」를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업체들과 품질문제 발생에 따른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해 소프트웨어개발에 적용할 상세내역 등을 공개하고 이를 컴퓨터로 분석·평가하는 품질평가지원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용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발주물량 증가에 대비,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되는 소프트웨어수요예보제는 특정업체들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모든 개발업체들에 균등한 공개입찰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발주할 소프트웨어 내용을 1년전에 공개, 참여 업체들에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의욕을 북돋워 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상 공 부

### 정보공개법 제정 추진

상공부는 DB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유자료를 공개토록하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초 상공부에 따르면 경제통계·투자정보등 민간에게 중요한 많은 정보를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나 공개가 미흡하여 유용한 DB구축 및 DB이용확산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 정보공개를 위한 특별입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정보공개법의 초안을 조기에 마련, 총무처와 협의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개인관련 정보는 이 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이다.

한편 상공부는 필요한 정보의 소재 파악이 용이토록 국내 DB목록을 산업기술정보원 및 DB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제작, 활용토록하는 DB목록제도의 도입도 이와 병행추진키로 했다.

## 노동부

### VDT작업안전관리지침 시행키로

컴퓨터단말기·워드프로세서 등 이른바 VDT(Visual Display Terminal)를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VDT 작업안전관리지침」이 처음 제정돼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사무자동화 추세로 컴퓨터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VDT작업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진단 항목조차 설정돼 있지 않는 등 장애예방장치가 전무해 VDT 작업장의 각종 기준을 명시한 작업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초안이 완성된 이지침은 컴퓨터단말기 워드프로세서 등 VDT기기를 이용해 자료의 입력-검색-문서작성-편집-수정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VDT의 화면, 작업장 설비, 작업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기 상 청

### 기상DB시스템 구축

중앙기상청은 PC사용인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상 관련 정보를 컴퓨터로 서비스

한다는 계획아래 연내 기상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내년초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업무자동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PC사용자가 전화선과 연결된 모뎀을 통해 기상청의 호스트컴퓨터와 접속, 각 지역관측소에서 측정된 날씨·습도 등 전국 기상정보를 텍스트파일로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기상청은 이 시스템을 구축, 현재의 날씨동향 외에 과거기상자료등도 서비스할 계획이라서 이를 베이스로 향후 기상변동등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상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상청은 오는 10월중으로 중·대형컴퓨터를 비롯, CD-ROM등 30만달러 규모의 설비를 도입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기상데이터누적등을 고려,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상청은 2차년도 사업으로 현재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는 기상도 등 그래픽도면을 이미지스캐너를 이용, 광파일링시스템으로 보관·검색하는 일기도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산인력 1천2백명 양성계획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계가 겪고있는 전산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전산인력 위탁연수를 올해부터 본격화, 매년 3백명씩 4년동안 1천2백명의 전산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동 공단은 위탁연수기관으로 원광대 서강대 생산성본부 시스템공학연구소 정보문화센터 등 13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12~24주 과정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용 시스템운영과 프로그래밍등을 연수시키기로 했다.

중진공은 연수비용의 60%를 보조하며 연수참가업체가 업무전산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컴퓨터구입자금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백5개업체 1백28명의 중업원이 위탁연수를 받았다.

연수기관별 개강시기는 다음과 같다.

- △원광대·시스템공학연구소·생산성본부·케이티브리 기계연구소(3월4일)
- △한남대·조선대(3월11일)
- △계명대(3월18일)
- △서강대(3월25일)
- △동아대·태양금속(4월1일)
- △한국컴퓨터기술원(4월8일)
- △정보문화센터(4월15일)